

2023 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시작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줍니다. 지난 실수와 부족했던 부분을 뒤로하고 다시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받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3 년 새해에는 선교사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로 인사를 드리려 합니다. 저는 최근 선교사 자녀들의 모임인 mKainos 의 retreat 에 참석하여 11 개국에서 온 선교사 자녀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의 자녀들을 missionary kids 라고 부르는데 줄여서 MK 라고 부릅니다. 선교사 자녀들은 부모의 뜻을 따라 부모선교사가 가는 나라에 적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전방 선교사들의 경우 선교사라는 신분을 드러내고 사역할 수 없어서 선교사 자녀들은 일반 이민자와는 또 다른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MK 들은 항상 부모선교사들의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번 retreat 에서 MK 들이 나눴던 이야기에는 선교현장의 삶이 녹아있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생각하는 방식과 성격이 선교지 문화의 영향을 받았는지, 선교지와 부모의 고향 사이에서 늘 새로운 적응을 해야 했던 이야기들을 나눌 때는 MK 들만의 공감대가 있었고, 그들의 삶을 듣는 저 역시도 제 자녀들의 마음을 잘 몰랐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MK 들은 선교라는 단어를 긍정적으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던 선교지의 경험들 중에는 아픈 경험도 있었지만, 복음의 가치에 생명을 걸었던 선교사 부모님의 삶은 MK 들에게 '선교는 삶'이며 '선교적인 삶'이 결국 선교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MK 세대를 들어서 business, education, technology 등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삶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들중에는 선교사의 삶으로 헌신하는 MK 들도 있습니다.

상처와 연약함 속에 끝까지 MK 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저에게도 많은 도전이 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도전이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듣기 좋은 소식보다는 위기의 신호가 곳곳에서 들려와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 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인도하심은 때로는 우리를 우리가 원하지 않는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광야의 길'(이사야 43:19)을 '하나님께 가는 길'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광야와 같은 선교지에서도 MK 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023 년, 하나님께서는 동역자 여러분들의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한층 더 성숙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빚어 주실 것입니다. 새해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GP-USA 대표 배선희 선교사